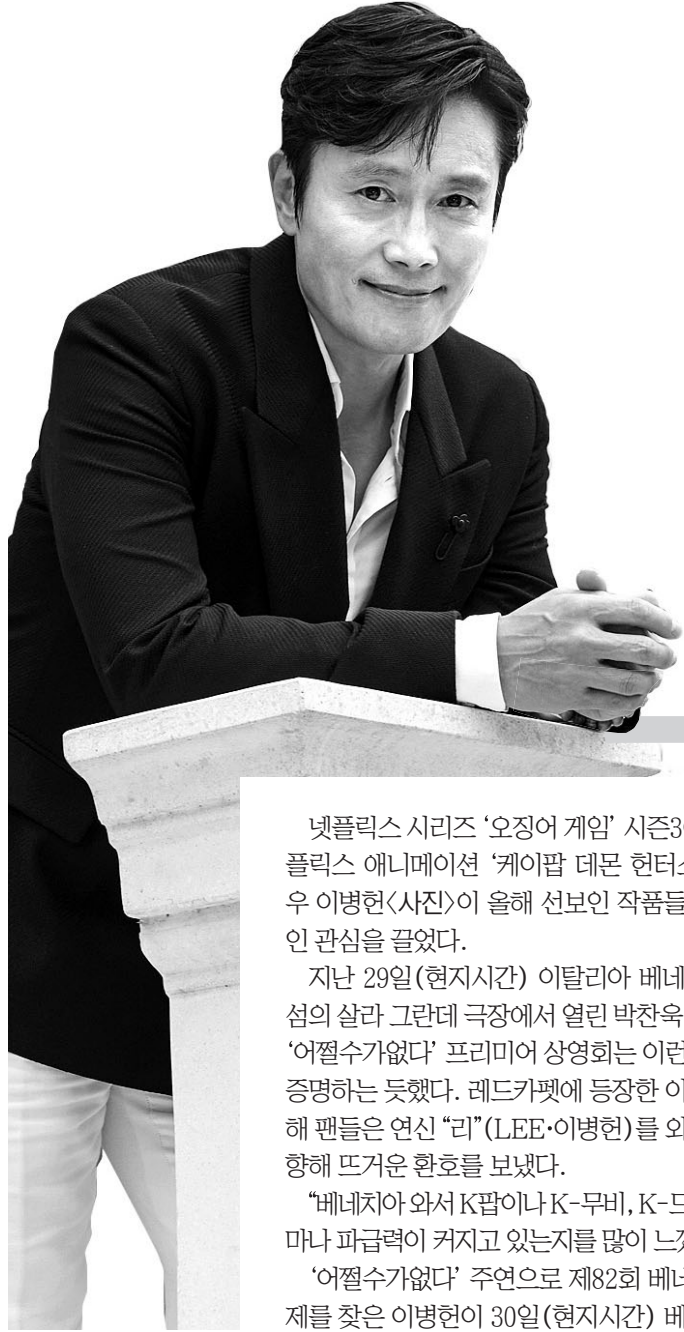




베네치아영화제에 뜬 이병헌 “이젠 K-문화가 주류”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 없다' 경쟁 부문 초청

해고 당한 가장이 재취업 위해 경쟁자 제거 시도 담아
출연작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 관심...현지 팬들 환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에 이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배우 이병헌(사진)이 올해 선보인 작품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열린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수가 없다' 프리미어 상영회는 이런 화제성을 증명하는 듯했다. 레드카펫에 등장한 이병헌을 향해 팬들은 연신 "리"(LEE·이병헌)를 외치며 그를 향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베네치아와서 K팝이나 K-무비, K-드라마가 얼마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쩔수가 없다' 주연으로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를 찾은 이병헌이 30일(현지시간) 베네치아 리도섬의 한 호텔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한국 문화의 달라진 위상을 짚었다.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어쩔수가 없다'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전날 일반 관객에게 처음 선보였다.

이병헌은 "K-문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소수가 좋아하는 문화라고 우리가 자칫 받아들이 수 있지만, 지금 주류로 가는 느낌"이라며 "베네치아영화제에 와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병헌은 함께한 박찬욱 감독의 위상도 제값했다고 한다. 그가 박 감독 영화에 출연한 것은 '쓰

리, 몬스터' (2004) 이후 21년 만이다.

이병헌은 "(프리미어 상영회가) 끝나고 뒤풀이를 감독님에게 와서 '영화 잘 봤다'는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영화인들이 저의 영화를 훌륭하게 봤다는 점을 느껴서 좋았다"며 "세삼스럽게 감독님이 진짜 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어쩔수가 없다'는 해고당한 가장 만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야기로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엑스'(THE AX)를 원작으로 했다.

이병헌은 "전체적인 정서가 어둡고 서글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의도치 않게 흑 들어오는 코미디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감독님이 주문하셨다. 너무 작위적이지 않은 선에서 연기를 하려고 했다"며 "상황이 주는 코미디가 오래 기억에 남고 덜 촌스럽다는 점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했다"고 돌아봤다.

'어쩔수가 없다'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인과 폭력이 등장한다. 다만 그 수위는 이병헌이 박 감독과 이전에 촬영한 '쓰리, 몬스터'보다 낮은 편이다. '어쩔수가 없다'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받았다.

이병헌은 "저희 영화가 순한 맛이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 잔인함이 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씁쓸한 유머가 묻어나는 블랙 코미디가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서글프고 쓸쓸한 느낌인데, 여기에 코미디를 엮었어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묘한 감정을 관객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영화 '어쩔수가 없다' 한 장면.

다시 시작되는 사랑...진한 여운

JTBC 금요시리즈 '착한 사나이' 해피엔딩...시청률 3%대 종영

정통 멜로를 내세운 JTBC 금요시리즈 '착한 사나이'가 3%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지난 30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한 JTBC 금요시리즈 '착한 사나이' 최종회(14회) 시청률은 3.1%(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11회에 1.7%까지 떨어졌던 시청률이 회복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최종회에서는 폭력조직에서 벗어나려던 박석철(이동욱 분)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려는 오상열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 싸움 끝에 박석철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

고, 첫사랑 강미영(이성경)과 출소 후 다시 만난다. 둘의 로맨스가 다시 시작될 것을 예고하며 따뜻하게 마무리됐다.

이동욱·이성경 주연의 '착한 사나이'는 JTBC가 처음 선보이는 금요시리즈이자, 장르물이 대세가 된 드라마 업계에서 오랜만에 보는 멜로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다. 조직폭력배의 순정과 다시 만난 첫사랑, 진한 우정과 배신 등을 다뤄 향수를 자아내는 옛날 드라마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가족이 갈등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이야기도 담아냈다.

/연합뉴스



'썸시봉' 마지막 콘서트



가수 윤형주, 송창식, 조영남, 김세환(왼쪽부터).

윤형주·송창식·조영남·김세환 57년만에 전국 투어
6일 성남서 첫 공연...“이 나이에 함께 공연 축복”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연습실.

나란히 자리를 잡은 가수 조영남(80)과 송창식(78), 윤형주(78)와 김세환(77)이 열 사람과 팔을 맞댄 채 통기타로 노래 '리버스 오브 바빌론'(Rivers of Babylon)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조영남과 윤형주가 부드럽게 고음을 노래하면, 송창식과 김세환은 힘 있는 저음으로 균형을 맞췄다. 1960년대 음악감상실 '썸시봉'에서 청춘을 노래했던 이들은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당시의 화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번 달 시작하는 전국투어를 앞두고 첫 리허설을 진행한 네 사람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고 다만 세상이 변한 것"이라며 "나이만 많아졌을 뿐,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행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6일 성남과 10월 11~1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썸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

조영남을 비롯해 포크 듀오 '트윈폴리오'로 활동한 송창식과 윤형주, 막내 격인 김세환이 무대에 오른다. 당시 썸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을 진행했던 방승인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한다.

이들 썸시봉의 주축이 한 무대에 서는 것은 57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썸시봉의 이름으로 투어를 개최한 적 있지만 2011년부터 열린 전국투어에는 조영남이, 2015년 투어에는 송창식이 불참했다.

조영남은 네 멤버가 썸시봉이라는 이름으로 한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썸시봉 멤버들은 여러 히트곡과 함께 후배 가수와의 합동 무대 등 다양한 무대를 꾸민다. 또 다른 썸시봉 주축인 이장희의 영상 메시지, 멤버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윤형주는 "이 나이에 같이 공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축복"이라며 "성격들이 별나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서울 무교동 소재 음악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썸시봉은 1960년대 청년문화를 주도하며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이었던 조영남은 팝송을 배우기 위해 썸시봉을 찾아 무대 경험을 쌓았다. 윤형주는 조영남의 소개로 썸시봉을 찾았다가 송창식을 만나 듀오 트윈폴리오를 결성했고, 김세환은 송창식과 윤형주가 써준 곡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누렸다.

조영남은 "우리가 방탄소년단(BTS)의 원조였다"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6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로 음악의 힘을 꼽았다. 가진 돈을 나누는 것은 물론 자신이 쓴 노래도 다른 썸시봉 멤버에게 선물 넘겨줄 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고도 돌아봤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